

**** 2026 광복절 백일장 수상작**

<초중등부>

최우수상 - 송라희 <8월 15일, 그냥 평범한 날?>

우수상 - 송라임 <잔머리 아니고 창의력입니다>

우수상 - 김도현 <동생이 많은 나>

가작 - 이지현 <To scroll or not to scroll>

<일반부>

최우수상 - 이재국 <항아리>

우수상 - 김꿈 <부모님 때문에 왔어요>

우수상 - 김민영 <내가 잃어버렸던 것>

가작 - 김태리 <오래 불어온 마음>



신 이림 작가

시인. 동화작가(시마을 동인)

1996년 <<서울신문>> 신춘문에 동화 당선.

2011년 <<황금펜아동문학상>> 동시 당선.

2021년 '한국불교 아동문학상'

2025년 '한정동 아동문학상'수상.

동화집: 「염소 배내기」 「싸움닭 치리」외 다수.

「싸움닭 치리」: 청소년북토크 도서선정, 한국어린이교육문화산업진흥원 도서선정

동시집: 「발가락들이 먼저」 「춤추는 자귀나무」 「엉뚱한 집달팽이」

「엉뚱한 집달팽이」: 한국출판문화원 도서선정, 새싹회 <화제의 책> 선정,

한국동시문학회 올해의 동시집 선정,

광복절 한인백일장 심사평

신 이림(시마을 동인, 시인 작가)

2026년 광복절 백일장 응모 작품 중 예심을 거쳐 올라온 작품은 초중등부에 산문 5명, 운문 1명. 일반부에 산문 5명, 운문 4명이었다.

<초중등부>

우선 초중등부에서 '홍길동'과 '고양이'는 운문이 갖는 리듬감은 좋았으나 대상을 해석하기보다 보여주는 것에 그쳐 아쉬움이 남았다. '우리나라의 좋은 것들' 또한 나라사랑하는 마음은 잘 드러내었으나 좋은 것을 나열하는 것에 그쳐 아쉬움이 남았다. '동생이 많은 나'는 평범한 소재이지만 동생으로 인한 장단점을 어린이다운 솔직함으로 표현한 것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To scroll or not to scroll'은 디지털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스마트폰과의 갈등을 재미있게 풀어놓았다. 광복절을 맞아 스마트폰과 싸우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고 유관순을 떠올렸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잔머리 아니고 창의력입니다'는 최선을 다한 과제로 기립박수를 받았는데 엄마는 그것을 잔머리 덕분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항의성 글이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창의성과 잔머리의 차이점을 독자들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한다. '8월 15일, 그냥 평범한 날?'은 우리나라가 독립하게 된 동기에 대해 정의를 달리한 글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독립은 일본이 패망함으로써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나 글쓴이는 선조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것이 원천적 동력이었다고 보았다. 일본이 패망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언젠가 독립을 했을 거라는 시선이다.

모든 작품들에 다 상의 기쁨을 주고 싶지만 그 중에서 송라임의 '잔머리 아니고 창의력입니다'와 김도현의 '동생이 많은 나'를 우수작으로, 송라희의 '8월 15일, 그냥 평범한 날?'을 최우수작으로 선정한다. 안타깝게 수상작에 들지 못한 작품들에도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일반부>

일반부 운문 부문은 대체로 대상을 객관화시키지 못한 데서 오는 아쉬움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감정이 앞서 불필요한 설명이 시의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피카소가 자전거의 핸들과 안장을 황소 머리로 읽었듯이, 시인은 평범한 것에서 새로움을 읽어내는 밝고 깊은 눈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새삼 들었다.

산문 부분은 소재가 다양했다.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황당한 이야기부터 백일장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게 된 이야기, 정체성에 대한 갈등을 담담하게 써내려간 이야기 등, 다방면에서 읽는 재미와 생각의 깊이를 더해주었다.

우리나라 독립의 의미를 되새긴 이재국의 '항아리'는 항아리가 갖는 함축적인 상징성을 잘 차용하여 쓴 수작이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의 삶을 캄캄한 항아리 안의 세상으로 본 시선도 신선했고, 항아리 안의 삶이었지만 자유를 향한 두드림의 결과가 균열을 만들고 그 틈으로 빛을 보게 되었다는 설정 또한 흥미로웠다. 일제강점기 때의 폭력성을 현존하는 이방인에 대한 폭력성으로 확장시킨 점도 글쓴이의 역량을 가늠하게 했다. 주저없이 '항아리'를 최우수작으로, 김꿈의 '부모님 때문에 왔어요'와 김민영의 '내가 잃어버렸던 것' 두 편을 우수작으로 올린다.

-심사위원 신이림